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디자인비엔날레 관람

“갈수록 발전...포용디자인 주제 새로워”

강 시장 ‘포용 정신’ 확산
“文 各별한 광주사랑 감사”
양궁선수권대회도 관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2일 광주를 방문해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함께 둘러봤다.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강 시장은 1시간 동안 포용디자인 35년의 여정-옥소와 스마트디자인, 광주디자인진흥원의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경험 확장을 위한 이(e)-모빌리티 모듈형 가전,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 ‘세 번째 엄지(Third Thumb)’, 고령자 돌봄 로봇 ‘래미(Rami)’ 등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문 전 대통령은 관람에 앞서 방명록에 ‘디자인 예술의 혁신과 포용’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이후 제13·14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광주를 방문하는 등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문 전 대통령은 “디자인이 주로 아름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김경숙 여사와 함께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포용디자인이 주제이다”며 “나와 내가 ‘함께’를 지향하는 것이 새롭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대화를 더 할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함께’의 가치가 바로 광주정신의 핵심”이라며 “5·18민주화운동에서 시작된 광주의 포용과 연대 정신이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화답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는 앞으로도 문화

예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광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강기정 시장은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을 찾아 양궁 경기를 관람했다.

한편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올해 전시는 ‘나라

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디자인이 미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을 조명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 429명의 디자이너와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디자인비엔날레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를 ‘광주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새정부 에너지 정책 선도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에너지 혁신 선도 모델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전남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상풍력·RE100 산단 기반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속도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 1조원 규모 에너지 소득 실현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2일 실국장 현안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그 동안 전남이 준비해온 에너지 정책이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주민참여형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전국 최초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계

획 등을 추진하며 미래 에너지 전환의 모델을 구축해왔다.

에너지 기본소득,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등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전남도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연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규제 완화, 전기요금 지원, 배후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바로 전남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와 일치한다”며 “새 정부와 함께 전남 미래 100년 성장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부권 재생에너지 대전환도 속도를 낸다.

도는 동부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T/F’를 즉각 꾸려, 석유화학·철강 산업단지를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산단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전남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RE100 국가산단과 에너지 혁신 선도 모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민과 함께 전남형 청사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전남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 ‘저조’

400명 중 75명 불과...지나해 한도 전액 모금 4명 뿐
제도 뒷받침 부족 등 실효성 부족...“적극 홍보·관리”

광주·전남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후원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회 설립률이 저조해 제도 뒷받침 부족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의원 400명(광주 92명·전남 308명) 가운데 후원회가 설립된 수는 총 75명(광주 19명·전남 56명)에 불과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지역은 23명 중 10명, 전남지역은 61명 중 25명만이 후원회를 설립, 설립률은 40%에 그쳤다.

기초의원의 경우 광주는 69명 중 9명, 전남지역은 247명 중 31명으로, 설립률이 12%를 맴돌았다.

지나해 광주 평균 후원회 모금액은 광역의원 1071만원·기초의원 1040만원이었다. 전남은 광역의원 1894만원·기초의원

109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나해 모금 한도액의 전액을 모금한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4명(광주 0명·전남 4명)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평균 모금액은 지난 6월 기준 광주 광역의원 1487만원·기초의원 333만원, 전남 광역의원 1212만원·기초의원 338만원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 설립률이 14%를 기록하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광역의원은 267명(31%)이었으며, 기초의원 2987명 중 275명이 후원회를 설립해 9% 기록했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지나해 평균 모금액은 1037만원, 올해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1과 기초의원 1로 나눠 살펴보면, 지나해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1311만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721만원 가

량이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778만원, 기초의원 평균 모금액은 351만원 가량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인 5000만원(광역)과 3000만원(기초)에 한참 못 미친다.

박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나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나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며 기부액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사전 판매로 최대 40% 할인...도민·가족·단체 특별 혜택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판매를 추진한다.

사전예매는 총 4차례에 걸쳐 기간별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큰 할인이 적용되는 1차 사전예매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40% 할인이 적용돼 성인은 9000원, 청소년은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단체권, 가족권, 전 기간권에도 동일하게 단계별 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전 기간권은 전남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남중

주민을 대상으로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판매돼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관람객을 위한 맞춤 혜택도 마련했다.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이 함께 입장할 경우 단체 할인권이 적용되며, 인솔자는 무료입장할 수 있다. 4인 가족이 함께하는 경우 가족 할인은 정상가 3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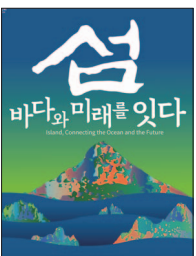
여수시민과 65세 이상~74세 이하, 군경,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은 우대 할인을 통해 성인기준 8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다. 전남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남중

권 주민은 야간권을 정상가의 50%에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온라인 인터파크 놀터켓 누리집(https://nol.interpark.com)에서, 오프라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농협과 권역별 읍면동, 대형마트 등으로 판매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이 섬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국제행사”라며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사전예매를 통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권 주민은 야간권을 정상가의 50%에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온라인 인터파크 놀터켓 누리집(https://nol.interpark.com)에서, 오프라인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앞으로 농협과 권역별 읍면동, 대형마트 등으로 판매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이 섬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국제행사”라며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사전예매를 통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로사업부분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방법, 우수분리장치 외

노약자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울타리

S&I등급 보도용 방호 울타리(섬의무회) 기초공사기 필요 없이 공사비 절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적용(7종난간) 보도폭 확보 용이

빗물 저류 침투조

- 블록형 경함구조로 사용이 간단
- T-25에 대응한 고강도 제품
- 공극률 95%이상
- RoHS 기준, 토양오염환경기준, 내약품성기준 모두 만족

강제 물러 가이드레일

개방형 가이드레일

교량 난간

디자인 난간

목재형 난간

일부미끄러 테크

식생포장

본 사 1공정 전남 영광군 영광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 무 소 2공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15)로 172 한림유먼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